

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지방의회 관련 비목 완화 및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건의안

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 더불어민주당 도봉4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 동 욱 의원입니다.

이렇게 운영위원회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지방의회 관련 비목 완화 및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건의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그럼 건의안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헌법상의 필수기관인 지방의회는 부활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중앙집권적 구조의 틀 안에 머물러 있고,

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의회관련 예산비목을 9가지 경비로 유형화하고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율하는 등 그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어,

□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의원들의 입법·정책 연구활동, 교육연수, 주민소통, 의정홍보 등이 한계에 봉착되고,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□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‘지방의회관련 비목 완화’ 및 ‘예산편성의 자율성’ 보장과 각 비목의 예산편성 기준액 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했습니다.

□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,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